프로그램북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국립무용단 소유로, 재사용(개인 SNS 및 웹사이트 등)이 불가합니다.

안무가

이이슬
송윤주
선승훈



프로젝트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2026-2027

2026.11.6~8

국립극장 달오름

인사말

국립무용단 예술감독 겸 단장 김종덕



남산에서 맞이하는 네 번째 가을입니다.

허공을 반쯤 드리운 붉은 단풍과 파란 하늘이
극적 대비를 이루는 계절에 세 명의 신진 안무가와
국립무용단 청년교육단원이 함께하는 <안무가 프로젝트>가 개최됩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불면의 밤을 보냈을 안무가와 연습실에서 함께 땀 흘렸을
무용수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최상의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을 제작진의 열정이 모여 어떤 무대가 완성될지 무척 기대됩니다.

〈2026 안무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세 명의 안무가는 각자의 시선과 감각으로
새로운 춤의 언어를 모색하는 신진 예술가들입니다. 기존의 형식과 틀에
얽매이지 않는 대담한 시도와 생동감 넘치는 몸짓을 통해 한국춤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나게 되리라는 기대에 설렙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기획을 통해 국립무용단의 역사성을 존중하며, 한편으로
동시대성을 지향하는 실험적인 무대를 통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립무용단 안무가 양성 사업 연혁

2001 – 2012 <바리바리 촘촘 디딤새>	전통춤 시연 및 워크숍을 기반으로 한 창작 작품을 무대에 올리며, 한국춤 기반 안무가 양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무대다.
2003 – 2009 <동동 2030>	<바리바리 촘촘 디딤새>의 성과를 발전시켜 달오름극장용으로 확장해 선보인 무대. 국립무용단 내 창작 안무가 발굴·지원 사업 체계를 구축한 사업이다.
2011 – 2014 <엔톡 초이스> <국립예술가시리즈>	국립극장 전속단체 단원들의 다양한 예술세계를 소개하며 젊은 안무가에게 창작 기회를 제공하고 국립무용단 레퍼토리를 확대한 무대다.
2018 – 2019 <넥스트 스텝> 시리즈	체계적인 제작시스템을 갖춘 '창작 프로젝트'로, 국립무용단 미래 레퍼토리 발굴을 위해 창작 역량을 갖춘 단원을 선발, 안무가에게 실질적인 제작 경험을 제공하고, 한국무용 안무가 부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 기획이다.
2020 – 2022 <홀춤> 시리즈	국립무용단의 전통춤 소품 레퍼토리 발굴을 위해 기획된 공연으로, <홀춤>(독무)을 거점으로 <겹춤>(이인무), <온춤>(군무) 등으로 확장하며 전통춤의 매력을 동시대 관객에게 전달했다.
2023 – 현재 <안무가 프로젝트>	'가치 만드는 국립극장'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무용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안무가를 선정해 동시대적 감각과 높은 완성도를 담은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국립무용단 〈안무가 프로젝트〉 1/2

국립무용단의 차세대 안무가 발굴,
한국춤의 새로운 가능성 발견

국립무용단은 오랜 시간 안무가를 찾고 키워내며 한국춤 창작의 토대를 넓혀왔다. 가능성 있는 아이디어가 작품으로 발전하고 실제 무대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의 범위와 방식을 확장해왔다. 2001년 시작한 <바리바리 촘촘 디딤새>와 우수 창작 작품을 중극장 규모로 확장한 <동동 2030>을 통해 안무가와 작품을 발굴하고 지원 사업의 체계를 마련했다. 이어 국립무용단원 개개인의 예술세계를 조명한 <엔톡 초이스><국립예술가시리즈>, 국립극장의 체계적인 제작시스템을 기반으로 창작 작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 <넥스트 스텝>, 전통춤 소품 레퍼토리를 발굴한 <홀춤>까지 다양한 시도를 이어왔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2023년 시작한 <안무가 프로젝트>는 참여 대상을 국립무용단원에서 외부 예술가까지 넓히고, 창작자의 아이디어가 하나의 공연으로 완성되기까지 제작 전 과정을 지원한다. 공개모집을 통해 다양한 재능과 발전 가능성을 지닌 안무가를 선발하고, 일대일 멘토링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작품의 방향을 구체화한다. 이후 무용수, 음악가, 국립극장 무대 스태프 등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제작진과 협업하며 아이디어를 움직임과 장면으로 구현하고, 무대·조명·의상 등 공연을 구성하는 각 요소가 작품의 의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조율하는 과정도 거친다.

<안무가 프로젝트>는 안무가가 서로 다른 분야의 언어를 이해하고 작품 전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실제 제작 경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안무가는 자신만의 움직임 언어를 개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무용수의 몸을 통해 예술적 관점을 표현하며, 하나의 공연으로 완성하는 안목을 기르게 된다. 제작 과정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경험 역시 주체적인 창작자로 성장하는 기반이 된다. 이러한 창작과 협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안무가들은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구축하고, 한국춤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장해 나간다.

국립무용단 〈안무가 프로젝트〉 2/2

프로젝트에서 시작된 작품이 더 큰 무대로, 창작의 성과를 이어가다

<안무가 프로젝트>의 성과는 공연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다. 국립무용단은 프로젝트를 통해 가능성을 인정받은 작품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재창작에 대한 전 과정도 지원한다. 안무가는 공연 시간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작품의 주제와 흐름을 한층 깊이 있게 다듬고, 움직임과 장면의 구성을 보완한다. 조명·음악·의상 등 무대 요소도 확장된 구성에 맞춰 재정비하며 작품의 완성도를 높인다. 이렇게 발전한 작품은 국립무용단의 정규 레퍼토리와 국내외 초청공연 등을 통해 더 많은 관객과 만나며 생명력을 이어간다.

그 결과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최호종·정보경·이재화 등의 안무가들은 한국 무용계를 이끌 차세대 창작자로 주목받았다. Mnet 〈스테이지 파이터〉 출연으로 대중에게도 알려진 최호종은 안무작 <야수들>에 직접 출연해 2023 한국춤비평가상에서 연기상을 수상하며 신진 안무가로서 입지를 다졌다.

정보경의 <메아리>는 2023년 우수작에 선정된 이후 댄스필름으로 제작되며 무대 밖으로 영역을 넓혔다. 지난 3월에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국제무용영화제 '시네댄스 페스트(Cinedans FEST)' 경쟁 부문에 진출해 암스테르담 EYE 필름뮤지엄(Filmmuseum)에서 유럽 관객과도 만났다. 한국무용 작품이 영상이라는 새로운 매체를 통해 국제 영화제 경쟁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정보경은 2025년 4월 <미인> 안무가로 참여했으며, 2027년 4월에는 해오름극장에서 재공연을 앞두고 있다.

이재화의 〈탈바꿈〉은 2024년 우수작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5년 국제현대무용제(MODAFE) 폐막작으로 초청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2026년 6월에는 기존 30분에서 60분으로 작품을 확장해 국립무용단의 정규 레퍼토리로 달오름극장 무대에 올랐다. 이어 10~11월에는 '2026 투어링 K-아츠' 사업을 통해 미국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에서 공연하며 해외 관객과 만났다. 2027년에는 태국과 필리핀 등 아시아권 투어도 계획되어 있어 활동 무대를 세계로 넓혀가고 있다.

국립무용단은 앞으로도 새로운 창작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작품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프로젝트에서 시작된 작품이 일회성 발표에 그치지 않고 동시대 관객과 소통하며 한국무용 레퍼토리로 축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이러한 창작의 성과를 통해 한국춤의 새로운 예술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026 안무가 프로젝트〉 소개 1/2

세 개의 시선과 감각으로 담아내다,
안무가 이이슬·송윤주·선승훈의 신작 트리플빌

<2026 안무가 프로젝트>는 2026년 2월 공개모집을 통해 참여 안무가를 선발했다. 총 12명의 지원자 중 서류와 인터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세 명의 안무가 이이슬, 송윤주, 선승훈은 약 9개월간 멘토, 분야별 무대 제작진과 협업하며 각자의 작품을 발전시켜 왔다. 디자인 콘셉트 리서치부터 오브제 선정, 무대 장치와 의상 구현 방식에 이르기까지 제작의 각 단계에 직접 참여하며 처음의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무대로 발전시켰다.



〈2026 안무가 프로젝트〉 소개 2/2

이이슬의 <죽일 수도 없고>는 타인의 시선에 맞춰서 자신을 통제하게 된 몸에 주목한다. 한국춤의 균형적이고 정제된 감각을 바탕으로 몸에 새겨진 규율과 기억을 움직임으로 풀어낸다. 일곱 명의 무용수는 장구채와 물동이 등을 활용하여 몸을 규정하는 기준과 자신이 감당해야 할 무게를 담아낸다. 매번 흔들리는 중심 속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몸의 상태와 마주한다.

선승훈의 <COUNT>는 복싱에서 링 위에 쓰러진 선수에게 다시 일어날 시간을 세는 '카운트'를 모티프로,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는 몸의 시간을 바라본다. 삶의 반복과 권태, 예기치 않은 흔들림과 회복의 순간을 복싱의 스텝과 리듬으로 풀어낸다. 무용수들은 앞으로 나아가고 물러서고 멈추는 동작을 반복·변형하며 움직임의 흐름을 만들고, 바닥을 딛는 발소리는 한국 전통 장단의 호흡과 그루브로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송윤주의 <백야>는 한밤중에도 어두워지지 않는 시간 속에서 좀처럼 멈추지 못하는 현대인의 삶을 바라본다. 빛은 감추고 싶은 것들을 드러내고, 어둠은 불안을 감추고 휴식과 안식을 취하는 상태를 나타낸다. 작품은 빛과 어둠의 의미에 대한 익숙한 인식을 뒤집으며, 밝음 속에서 쉬지 못하는 몸의 상태를 포착한다. 흐릿한 백야의 풍경이 펼쳐진 무대 위에서 무용수들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부유하는 몸짓을 그려낸다. 여기에 몽환적인 재즈 선율이 더해져 잠들지 못한 채 이어지는 시간 속에서 불안과 고요, 외로움이 교차하며 마침내 우리가 기다려온 어둠의 의미를 묻는다.

〈2026 안무가 프로젝트〉 프리뷰 1/2

글. 김재리 (2026 안무가 프로젝트 그룹 멘토, 연출가, 드라마투르그, 무용연구자)

질문이 작품이 되기까지

하나의 질문이 작품이 되기까지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실제 작업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처음의 생각과 다른 곳에 도달하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무엇을 남겨둘 것인가? 이미 결정한 것을 다시 의심하거나 다른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는가? 특히 젊은 안무가들에게 아직 분명하지 않은 것은 결핍보다는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여지일 것이다. 안무의 과정은 늘 수많은 의문과 머뭇거림 속에서 예상하지 못한 것을 받아들이거나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선택이 이루어진다.

국립무용단 〈2026 안무가 프로젝트〉에서 멘토링은 이러한 불분명한 상태를 함께 통과하는 과정이었다. 안무의 방법이나 작품의 방향을 미리 결정하기보다, 각자가 마주한 의문에 함께 머무르면서 그것이 어디로 향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질문을 서둘러 해결하거나 하나의 의미로 규정하기 전에, 그 안에 어떤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중요했던 것은 세 안무가가 자신의 작업을 서로에게 열어놓고,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생각과 고민을 공유하는 일이었다. 자신의 작업을 설명하는 동안 동료의 질문이 더해지고, 익숙했던 선택이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는 낯설게 보이기도 한다. 서로의 시행착오를 바라보거나 자신의 문제에서 잠시 벗어나 타인의 작업을 함께 생각하는 과정은 각자의 질문이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러한 대화와 피드백은 서로 다른 안무적 관점이 만나고, 각자의 작업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문제를 함께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다.

〈2026 안무가 프로젝트〉 프리뷰 2/2

글. 김재리 (2026 안무가 프로젝트 그룹 멘토, 연출가, 드라마투르그, 무용연구자)

이이슬, 송윤주, 선승훈은 각기 다른 관심과 질문에서 출발했다. 이이슬은 한국춤 훈련 과정에서 겪은 '이중구속'의 조건 안에서도 끊임없이 선택하고 조율하며 움직이는 상태에 주목했고, 송윤주는 빛과 어둠에 대한 인식이 특정한 조건에서 전복되는 과정을 배치한다. 선승훈은 링 위에 쓰러진 선수에게 다시 일어날 시간을 세는 복싱의 '카운트'에서 출발해, 끝과 시작,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시간성을 한국춤의 장단과 리듬으로 연결했다. 세 안무가의 관심은 개별적인 경험에서 비롯되지만, 동시대의 삶을 구성하는 제도와 규범, 사회적 관계와도 얽혀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춤을 추며 축적해 온 개인의 기억과 감각, 관습과 미학은 타자의 경험과 서로 다른 안무적 조건들을 만나 새롭게 배치되고, 공연의 형식으로 구체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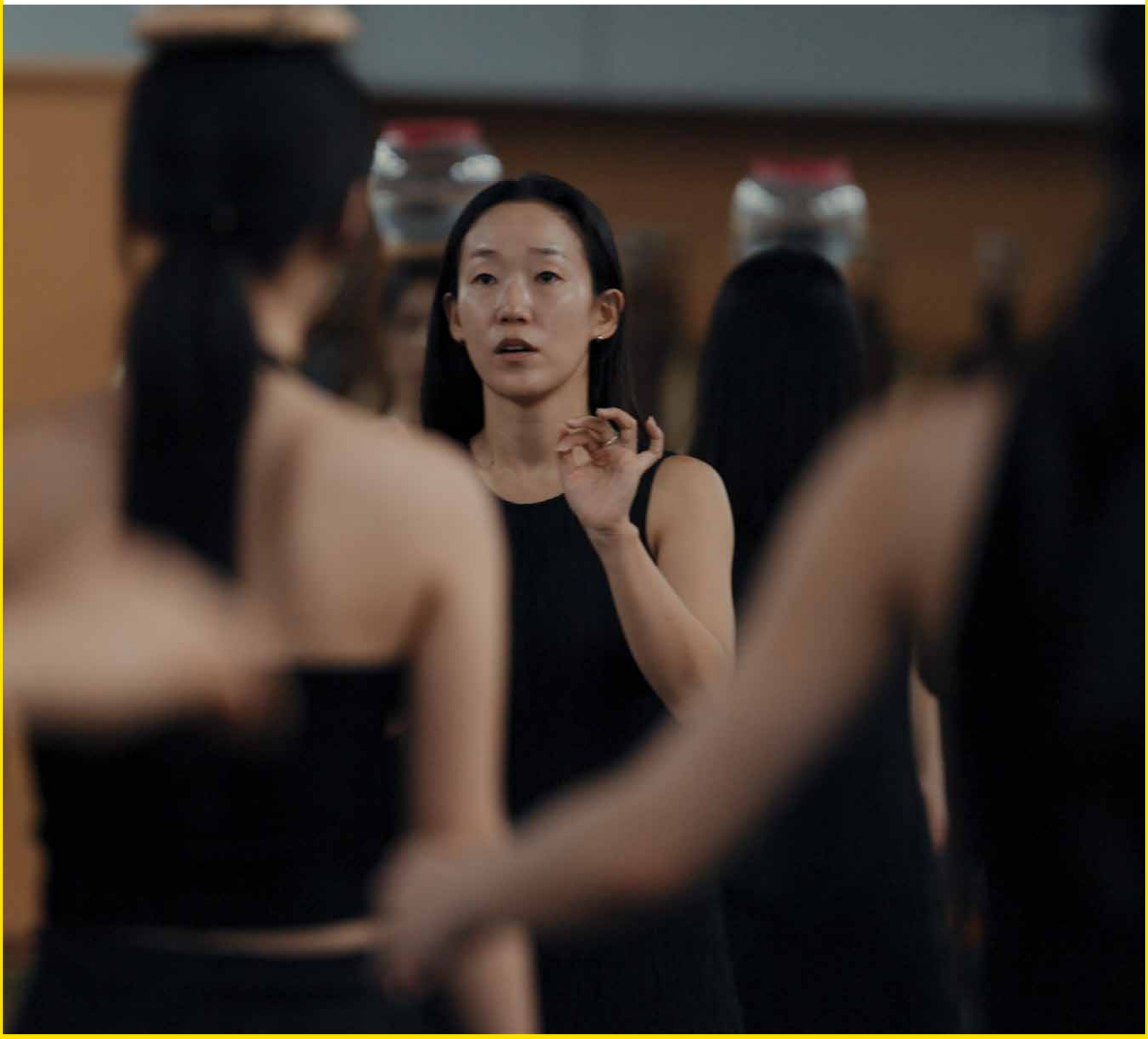
세 작품은 각자의 질문이 여러 선택과 변화를 거쳐 도달한 하나의 시점에 놓여 있다. 그 안에는 동료들과 나눈 대화와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자신의 작업,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의문들도 남아 있을 것이다. 작품이 무대에 오른 이후에도 이러한 질문들은 관객과의 만남 속에서 다시 읽히거나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각자가 놓인 안무의 조건 안에서 한국춤을 어떻게 다시 질문하고, 춤과 현실의 관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세 안무가가 아직 찾지 못한 질문을 타자들과 나누고, 그로부터 발생할 다른 가능성을 탐색하는 실천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죽일 수도 없고〉 안무노트

안무. 이이슬

<죽일 수도 없고> 는 사회적 기준을 오래 통과해온 몸이 어떻게 스스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몸으로 변해가는지를 바라본다. 한국춤 특유의 중심과 균형, 정제된 움직임의 감각을 바탕으로, 몸에 축적된 규율과 기억을 오늘의 신체 언어로 다시 조직한다. 무용수는 장구채, 축음기, 물동이와 같은 익숙한 사물들을 낯선 방식으로 다루며 몸을 측정하고 제한하는 기준, 감당해야 하는 무게, 끝내 밖으로 나오지 못한 목소리를 드러낸다. 흔들리고 반복되고 무너지는 움직임 속에서 몸은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듯 보이지만, 동시에 자신을 붙잡아온 질서로 되돌아간다. 이 작품은 억압과 해방을 단순히 대립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을 통제해온 기준이 이미 몸의 습관과 감각, 기억이 되어버렸을 때 무엇을 지울 수 있고 무엇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를 묻는다.



〈죽일 수도 없고〉 시놉시스

1장. 얼음 — 나를 바라보는 눈

여자 무용수 한 명이 등장한다. 눈이 그려진 보자기에 싸인 얼음을 들고 무대에 선다. 이 눈은 타인의 시선이면서 동시에 이미 내면화되어 내가 나를 감시하는 눈이다. 얼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기억과 고통이며, 동시에 굳어버린 자기 통제의 상태다. 무용수는 그것을 없애지 못한 채 자신의 몸에 다시 바른다.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일부처럼 몸에 입히는 장면이다.

2장. 대나무와 장구채 — 잘못 자라난 몸, 몸을 재는 기준

무대에는 먼저 약 4m 길이의 긴 대나무가 등장한다. 대나무는 하나의 소품이라기보다 몸에서 비정상적으로 길게 뻗어나온 신체의 일부, 혹은 잘못 자라난 발톱이나 뼈처럼 보인다. 무용수는 이 긴 대나무와 함께 움직이며 신체의 방향을 계속 바꾼다. 몸과 대나무가 하나처럼 연결되기도 하고, 끌려가거나 뒤틀리는 상태가 만들어진다.
이 장면에서는 '시선'이 움직임의 중요한 원리가 된다. 대나무는 가시 같기도 하고, 회초리 같기도, 잣대 같기도 하다. 특히 '잣대'는 이 작품의 자기통제와 연결된다. 타인이 나를 평가하던 기준이 어느 순간 내 안에 들어와, 이제는 내가 나 자신의 몸을 재고 교정하는 기준이 된다.

3장. 축음기 — 소리 없는 아우성

무용수는 축음기의 나팔 부분만을 들고 등장한다.
본래 소리를 증폭시키고 밖으로 내보내는 장치이지만, 이 장면에서는 정작 뚜렷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입을 벌리고 외치는 듯한 몸, 무언가를 말하려는 몸은 존재하지만 소리는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다. 나팔은 목소리를 크게 만들어주는 도구이면서 동시에,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상태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오브제가 된다.

4장. 물동이 — 눈물 속의 몸

무용수는 물이 담긴 투명한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등장한다. 무용수가 움직일 때마다 물동이 안의 물은 계속 흔들리고 찰랑인다. 몸은 균형을 유지하려 하지만 물은 끊임없이 그 균형을 흔든다. 중요한 것은 물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상태를 그대로 머리 위에 이고 견디는 것이다.
물동이 안의 금붕어는 하나의 명확한 상징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제한된 물 안에서 흔들리고 떠다니는 금붕어의 상태는 점차 무용수의 몸과 겹쳐 보인다. 어디로 갈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존재, 계속 흔들리지만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존재다.

〈죽일 수도 없고〉 안무가 소개



이이슬

한국무용의 호흡과 신체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움직임과 개성 있는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안무가 이이슬. 전통의 형식을 그대로 재현하기보다 다양한 소재와 장르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작품마다 자신만의 춤 언어를 구축해 왔다. 2022 한국무용제전 소극장 부문 <오라(AURA)>가 최우수작에 선정되며 주목받았고, 2023 MODAFE <HOME>, 2025 국립정동극장 <미얄> 안무에 참여했다. 2024년에는 tvN 드라마 <정년이>의 총안무감독을 맡아 무대를 넘어 매체로까지 활동 영역을 넓혔다.

〈죽일 수도 없고〉 출연진

국립무용단 청년교육단원



박수현



박정민



윤수진



이현승



정보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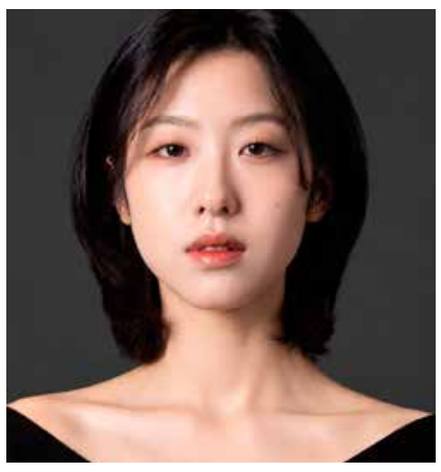


채지운



허종근

객원



권미정

〈죽일 수도 없고〉 프리뷰

글. 나수진 (평론가)

규범이 된 몸, 몸이 된 규범

물동이를 인 몸은 기울어질수록 몸에 밴 자세를 더욱 굳게 붙든다. <죽일 수도 없고>는 몸을 지탱해 온 감각이 동시에 몸을 옭아매는 기준이 되는 순간에 주목한다.

한국춤을 전공한 이이슬은 오랜 수련을 통해 중심을 잡고 호흡으로 움직임을 다스리는 감각을 익혔다. 우리 춤 특유의 정제된 아름다움이 이 감각 위에 서 있다. 하지만 그 감각이 스스로를 재단하는 기준이 되고 심지어 벗어나기 힘든 틀로 굳어버린다면 어떨까? 이러한 '본질의 양면성'에 주목한 이이슬은 '자신을 춤추게 해 온 규범이 동시에 자신을 옭아매 온 것은 아닌지'를 묻는다. 즉 익숙한 규칙을 따르려는 관성과, 고정된 틀을 넘어서려는 의지의 충돌을 그만의 신체 언어로 이야기한다.

이이슬은 내밀한 개인의 심리를 단순히 묘사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동시대인이 직면한 문제로 드러내는 데 강점을 보여왔다. 이번 작품에서도 한 예술가의 내밀한 고뇌는 '사회 속 개인과 규범'이라는 주제로 뻗어 나간다. 성공을 지향하는 사회일수록 개개인은 타인의 기준과 사회 규범에 맞춰 행동하는 훈련을 반복하며 자라난다. 그러는 동안 외부의 기준은 하나의 감각처럼 몸에 새겨지고, 바깥의 통제는 어느새 자기 검열로 바뀐다. 자신을 그럴듯한 모습으로 세워준 규범이 이제는 하나의 속박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에 늘 해 오던 대로 규범을 지키려는 관성과 답답한 틀에서 벗어나려는 저항이 한 몸에 공존하며 모순처럼 맞선다.



〈죽일 수도 없고〉 프리뷰

글. 나수진 (평론가)

이번 작품에서는 특별히 얼음과 대나무, 장구채, 물동이 같은 오브제가 몸을 규정하는 잣대와 저항감의 무게를 구체화한다. 무용수들은 극도로 섬세하고 절제된 움직임과 호흡으로 각 오브제와 상호작용하며, 억누르려는 의지와 벗어나려는 의지 사이의 긴장감을 시각화한다. 2장에서는 대나무를 갈라 만든 긴 대를 목과 어깨에 걸친 몸들이 그 휘어짐과 흔들림에 반응한다. 이후 등장하는 장구채에는 전통춤을 배우며 익힌 교정의 기억이 겹쳐진다. 몸선과 시선의 방향을 바로잡던 도구는 무대 위에서 몸에 새겨진 기준을 환기한다.

4장에서는 무용수들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균형을 지킨다. 몸이 기울면 곧 중심을 되찾고, 흔들릴수록 배워 온 자세를 더 단단히 붙든다. 이러한 일곱 무용수의 몸은 자신을 지탱하면서도 구속하는 규범과의 복잡한 관계를 드러낸다. 물동이를 지탱하는 것은 몸에 밴 균형 감각이다. 하지만 그 감각은 동시에 움직임을 스스로 단속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이러한 기준은 버티다가 흔들리고 기울다가 다시 균형 잡기를 반복하는 몸, 곧 '죽일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몸이 된다.

이러한 긴장은 음악과 움직임의 관계로도 이어진다. 사운드 아티스트 임용주는 장구채가 채편을 두드릴 때 나는 소리에서 이번 작품의 음악을 길어 올렸다. 몸의 자세와 방향을 바로잡던 도구가 이제는 움직임의 시간과 리듬에 관여하는 소리로 확장되는 셈이다. 분절된 소리와 몸의 호흡이 어떻게 맞물리는가? 그 맞물림과 어긋남의 긴장감은 몸에 새겨진 규범과 그로부터 벗어나려는 의지를 가늠하는 또 하나의 단서가 된다.

전작에서 만난 안무가 이이슬은 삶의 고통에 직면하고 문제를 발견하는데 주저함이 없어 보였다. 이번에는 그 시선이 자신의 몸에 새겨진 규범과 기억으로 향한다. 몸을 가다듬는 익숙한 감각 아래로 오래도록 삼켜 온 말과 억눌린 마음이 엿보인다. 이이슬은 전통적 소재와 오브제를 인물의 정서와 연결해 선명하고 감각적인 무대 이미지로 만들어 왔다. 전통춤의 감각과 음악이 어우러져 몸 안의 복잡한 갈등을 얼마나 섬세하게 드러낼지 기대된다. 무엇보다 몸에 밴 절제와 그 너머를 향한 의지가 빚어낼 춤이 궁금해진다.





〈COUNT〉 안무노트

안무. 선승훈

10, 9, 8, 7… 우리의 삶은 카운트와 함께 시작된다.
누군가의 자식으로, 친구로, 동료로, 그리고 나 자신으로.
나는 몇 개의 나로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는 지금 어떤 숫자를 지나고 있을까.
익숙함은 어느 순간 권태가 되고, 견뎌 온 하루는 짐이 되어 몸에 무게로 쌓인다.
정신이 흐트러진 순간 가벼운 펀치가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며, 우리는
쓰러지지 않기 위해 두 발을 더 단단히 땅에 붙이곤 한다.

바닥에 닿는 순간, 시간은 잠시 늘어진다. 몸은 먼저 흔들리고 호흡은 제자리를 찾으려 한다. 숫자는 계속 흐르지만 그 안의 사람은 한순간 과거와 현재 사이에 붙들린다. 일어나겠다는 결심보다 먼저 찾아오는 망설임, 포기와 투지 사이에서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 〈COUNT〉는 그 짧은 틈을 바라본다.

그리고 다시 카운트가 시작된다.
깨지고, 멈추고, 이어지며 몸의 소리가 탄생한다. 정신을 차리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다시 움직이려는 몸의 감각이다. 무너진 순간에도 다시 움직이기 위한 카운트가 시작된다.

우리는 무엇 하나 완성된 모습으로 세상에 서지 않는다. 늘 흔들리고 불완전한 모습을 지닌 채, 끝내 완성되지 않은 존재로 살아간다. 시간이 흐르고 많은 순간을 지나더라도 우리는 완성되지 않기에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며 앞으로 나아간다.



〈COUNT〉 시놉시스

1. 시작의 카운트

시합을 앞둔 무용수의 긴장감과 호흡에 장구 라이브 연주가 더해지며, 처음 세상과 마주하는 순간을 그려낸다.

2. 반복의 카운트

무대 위 실루엣으로 드러나는 움직임과 반복되는 동작들을 통해 무너진 몸과 복잡하게 얽힌 머릿속을 표현한다. 지속하고 멈추고 다시 시작되는 몸. 넉다운 된 머릿속은 끊임없이 다음을 찾아간다.

3. 충돌의 카운트

두 무용수의 직접적인 접촉과 격렬한 움직임을 통해 서로 부딪히며 나아가는 인간의 치열한 모습을 드러낸다.

4. 지속의 카운트

복싱 스텝에서 출발한 움직임이 점차 발전되고 확장되어가며 치열해진다.
서로의 움직임에 부딪히고 흔들리면서도 멈추지 않고 움직임으로 나아간다.
마치 스스로 한계에 도전하는 운동선수처럼 마지막 카운트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움직임을 이어간다.

〈COUNT〉 안무가 소개



선승훈

2024년 국립무용단에 입단한 선승훈은 <귀향>, <탈바꿈> 등 전통과 동시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스타일의 작품을 소화해 온 무용수다. 우리 춤에 대한 고민을 자신만의 움직임으로 풀어내며 안무가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2023년 서울무용제 댄스랩 <우리는 이미>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으며, <COUNT>를 통해 무용수의 몸을 넘어 안무가의 시선으로 한국춤을 새롭게 바라본다.

〈COUNT〉 출연진

국립무용단 청년교육단원



곽승주



박기윤



박수빈



천성은



천성현

객원



주영상



권진수



김동빈(장구)





〈COUNT〉 프리뷰

글. 지서훤 (피지컬 크리에이터, 피지컬 LAB 프로젝트팀 <온몸으로> 대표)

거꾸로 세어야 비로소 바르게 셀 수 있는 것

복싱의 카운트는 쓰러진 선수에게 남은 시간을 센다. 숫자가 10에 가까워질수록 패배가 다가오는 끝을 알리지만, 그때까지 다시 일어설 기회도 남아 있다.
반대로 카운트다운은 0을 향해 숫자를 줄이며 새로운 시작을 알린다.

그렇다면 끝을 향하는 숫자에서 다시 시작하려는 몸으로 시선을 옮겨보면 어떨까. 〈COUNT〉를 바라보는 순서를 잠시 거꾸로 해본다.
마지막 글자 T에서 첫 글자 C로 돌아가며, 숫자가 미처 설명하지 못하는 몸의 시간을 짚어본다.



〈COUNT〉 프리뷰

글. 지서훤 (피지컬 크리에이터, 피지컬 LAB 프로젝트팀 <온몸으로> 대표)

T-Time : 같은 1초, 다른 시간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숫자로 기록된다. 생년월일, 키와 몸무게, 주민등록번호까지. 이 숫자들은 사회가 한 사람을 식별하기 위해 부여한 일종의 바코드다. 그러나 숫자로 한 사람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해서, 그가 살아낸 시간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간을 재는 숫자도 마찬가지다. 시계는 일정한 간격으로 1초를 세지만, 몸이 경험하는 시간은 저마다 다르다.

누군가에게 10초는 눈 깜짝할 시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고통을 견디고 호흡을 고르며 다시 바닥을 딛기 위해 온 힘을 쏟아야 하는 긴 시간이다. 숫자는 그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려줄 뿐, 그 안에서 버텨낸 몸의 감각, 다시 움직이려는 의지까지 헤아리지는 못한다.

N-Number : 여섯 개의 문

문은 몸을 가두는 틀이 되기도 하고, 다른 곳으로 향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그 사이를 오가는 몸들은 때로 서로를 밀어내고, 때로는 서로에게 기대어 균형을 찾는다.

같은 카운트에 맞춰 움직이는 일곱 개의 몸. 하지만 그들이 살아온 시간과 감각까지 같을 수는 없다. 일곱이라는 수는 무대 위 인원을 알려줄 뿐, 각자의 존재와 그 사이에서 생겨나는 관계까지 설명하지는 못한다.

U-Uncertainty : 모르니까 움직인다

이 작품에서 흥미로운 것은 해결되지 않은 불편함 속에서도 끝까지 붙들고 움직임을 이어가는 몸이다. 답을 찾은 뒤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면서 자신이 놓인 상황을 탐색한다.

다음에는 무엇이 올지 확신할 수 없기에, 몸은 상대의 움직임과 소리에 반응하며 다음 스텝을 결정한다. 그 한 걸음은 미리 정해진 답이 아니라,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몸이 감지하고 선택한 방향으로 나아간다.

〈COUNT〉 프리뷰

글. 지서훤 (피지컬 크리에이터, 피지컬 LAB 프로젝트팀 <온몸으로> 대표)

O-Opening : O 이라는 공간

0은 끝일까, 시작일까?

숫자 0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의 동그란 빈 공간이 보인다. 닫힌 선이 둘러싼 빈자리다. 이 형태를 하나의 입구로 읽는다면, 0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표시이면서 아직 채워지지 않은 가능성의 자리가 된다.
복싱에서 카운트는 쓰러진 몸을 향해 이어진다. 카운트다운은 새로운 시작을 향해 숫자를 지워간다. 하나는 끝을 향하고, 다른 하나는 시작을 기다린다.
여기서 0은 끝과 시작을 가르는 경계이자, 그 둘이 만나는 공간일지도 모른다.
멈춘 몸이 다시 움직이기까지의 짧은 틈. 그 안에서 몸은 머뭇거리고, 호흡을 고르고, 다음 움직임을 찾는다.
무엇이 기다리는지 알 수 없기에 다음 움직임은 더욱 절실해진다.

C-Count : 살아내기 위한 스텝

하나, 둘. 하나, 둘.
우리는 그렇게 걸음마를 배우고 스텝을 익힌다. 넘어지고 일어서며 자신의 속도와 리듬을 찾아간다. 그러나 어린 시절 세상을 향해 내딛던 스텝은 어느 순간 살아내기 위한 스텝으로 바뀐다.
처음에는 저마다의 속도로 움직이던 발들이 점차 같은 박자를 밟는다. 각자의 리듬이 하나의 박자 안에서 만날 때, 스텝은 서로의 위치와 거리를 조율하는 방식이 된다.

링 위에 오르며

지친 몸이 다시 바닥을 딛고, 흔들린 중심을 붙잡으며, 다른 몸과 부딪힌 뒤에도 다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무엇이 자신을 계속 움직이게 하는지 스스로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몸은 멈추지 않는다. 〈COUNT〉의 마지막 글자 T에서 시작해 첫 글자 C에 도착했다. 끝을 알리는 카운트에서 출발했지만, 그 안에서 발견한 것은 다시 움직이려는 몸이었다.
어쩌면 거꾸로 세어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 승패가 결정되는 마지막 순간에서,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몸이 감당한 시간으로 시선을 돌리는 일.
그렇게 바라보면 카운트는 패배를 향한 초읽기이면서, 다시 일어설 기회가 아직 남아 있다는 신호로 들린다.

이제 링 위에 오를 시간이다.
5, 4, 3, 2...



〈백야〉 안무노트

안무. 송윤주

눈부신 형광등 불빛 아래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며 끊임없이 달려온 몸을, 깊은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침대에 누인다. 연기처럼 피어오르고 흩어지기를 반복하는 생각들.

하나가 사라지면 다른 하나가 기어이 빈 공간을 채운다.
감은 눈꺼풀 위에 내려앉은 어둠이 밝아져 가는 것만 같다.
불빛이 다시 머리를 채운다.
이것이 나의 백야다.

<백야>는 온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지친 몸을 이끌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담는다.
백야는 저 먼 땅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제자리에 머무르기 위해 끊임없이 앞으로 달려야 하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저마다의 백야를 지니고 있다. 빛은 온기와 활력을 주지만 감추고 싶은 것을 드러내고 휴식을 방해하기도 한다. 혼란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어둠은 누군가에게 깊은 안식을 주기도 한다. 이 작품은 어둠을 상실한 존재가 자신의 어둠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다. 하릴없이 이어지는 빛의 시간을 지나 오랫동안 기다려온 어둠과 마주하기까지.

“밤은 항상 너를 기다린다는 사실을 믿기 시작하라.” - 르네 샤르



〈백야〉 시놉시스

1장: 불면의 밤

밝은 빛을 감내하며 버텨온 몸이 잠들지 못한 밤, 기이하고 불안한 무의식의 풍경 속에서 서로를 낚아채고 끌어당긴다. 동시에 수많은 생각의 잔상에 사로잡혀 끊임없이 휘말리고 끌려간다.

2장: 불현듯

잠들지 못한 밤, 눌러 두었던 내면은 끝내 터져 나오고, 그 파편들이 어둠 속에 불현듯 모습을 드러낸다. 빛이 스치는 순간마다 몸들은 도망치고, 뒤엉키고, 추락하고, 춤추며 잠깐씩 형상을 얻었다가 다시 사라진다. 서로 이어지지 않는 듯한 장면들이 끊임없이 출몰하며 의식의 밤을 가득 메우고, 끝나지 않는 백야의 시간을 더욱 깊게 끌고 간다.

3장: 질주

마음속에서 이어지는 백야와 현실 속에서 감내해 온 빛이 만나 하나의 길을 이룬다. 두 세계가 맞닿는 순간, 몸은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향해 질주한다. 자신을 붙잡아 온 빛의 시간을 가르며 달리고, 기약 없이 이어질 것 같던 백야의 끝에서 마침내 오랫동안 기다려온 어둠을 맞이한다.

〈백야〉 안무가 소개



송윤주

한국춤에 깃든 정서와 움직임을 낯설게 바라보고, 이를 자신만의 몸과 언어로 다시 써내려가는 안무가 송윤주. 일상의 기억과 개인의 경험을 세심하게 들여다보며, 익숙한 주제와 감정 속에서 발견한 질문을 춤으로 확장해왔다. 젊은안무자창작공연 <뚝>, 서울국제안무페스티벌 <MUSE>, 제37회 한국무용제전 <알> 등을 선보였으며, 2019 젊은 안무자 창작공연 최우수안무가상, 2020 요코하마 댄스컬렉션 FITZ Award를 수상하며 안무가로서 역량을 인정받았다.

〈백야〉 출연진

국립무용단 청년교육단원


권대혁


김나은


김다나


배지은


신한서


이민성


이민애

객원


김효준



〈백야〉 프리뷰

글. 정보경 (안무가)

오래 바라본 춤, 새롭게 만나는 세계

그녀의 춤은 제가 아름답다고 믿어온 것들을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왔지만, 그녀의 작업은 늘 제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새로운 감각을 일깨웁니다.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몸이 낯설어지고, 쉽게 지나쳤던 움직임이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그녀의 춤을 바라보는 동안 저는 무엇을 보고 있었고, 무엇을 미처 보지 못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랜 제자이자 저의 춤벗인 송윤주는 익숙한 움직임에서도 다른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그녀의 작업에는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의 몸짓이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이어질지, 그 흐름이 어디에 닿을지 쉽게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 신선함 안에서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느낀 것을 끝까지 몸으로 확인하려는 창작자의 태도를 봅니다. 아직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각을 서둘러 정리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 힘, 저는 그녀의 그러한 태도를 존중합니다.

그녀의 움직임을 보고 있으면 임태승 교수의 책 『아름다움보다 더 아름다운 추함』이 떠오릅니다. 무엇을 아름답다고 여기는지에는 우리가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이 담겨 있습니다. 반듯하고 조화로운 형상에 익숙한 눈은 그 기준에서 벗어난 몸을 충분히 바라보기도 전에 판단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춤은 그 바깥에 놓인 몸의 모습에도 자리를 내어줍니다. 낯설고 때로는 불편한 움직임 앞에서 잠시 판단을 멈추면,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몸의 표정과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백야〉 프리뷰

글. 정보경 (안무가)

삶 속의 몸은 언제나 균형을 이루거나 매끄럽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마음보다 늦게 따라오기도 하고, 의지와 다르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피로와 불안은 자세와 호흡에 남고, 말로 다 설명하지 못한 감정은 작은 움직임에 배어납니다. 그녀의 춤을 따라가며 저는 그런 몸에도 저마다의 이유와 시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아름다움의 범위를 넓히는 일은 어쩌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을 넓혀가는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백야〉에서 빛과 어둠을 바라보는 시선도 이와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빛을 희망과 활력으로, 어둠을 불안과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밤이 되어도 어두워지지 않는 세계에서 빛은 휴식을 미루게 하는 조건이 됩니다. 계속 드러나 있어야 하는 몸은 자신을 내려놓을 시간을 얻지 못합니다. 이 작품에서 어둠을 기다리는 마음을 바라보며, 저는 한 사람이 온전히 쉬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에도 좀처럼 끝나지 않는 낮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마친 뒤에도 생각은 멈추지 않고, 몸을 눕힌 뒤에도 내일의 시간을 앞당겨 살아갑니다. 쉬는 동안조차 무엇인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합니다. 오래 버티는 것을 성실함으로 배워온 사람에게는 멈추는 일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다시 자신을 재촉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그렇게 밤은 찾아왔는데 몸 안의 낮은 끝나지 않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백야』에 등장하는 몽상가의 밤과 그녀가 바라보는 오늘의 밤을 나란히 떠올려봅니다. 홀로 깨어 있는 시간에는 그리움과 상상, 불안과 외로움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머뭅니다. 누군가에게 밤은 자신만의 세계를 펼치는 시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낮의 긴장을 내려놓지 못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백야〉는 지금 우리의 몸에 남아 있는 밤의 모습을 묻게 합니다. 우리는 쉬고 있는지, 그저 다음 날을 기다리며 버티고 있는지 말입니다.

〈백야〉 프리뷰

글. 정보경 (안무가)

수많은 사람과 같은 시간을 살아가면서도 서로의 피로를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어도 타인이 어떤 밤을 지나왔는지는 쉽게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춤이 그 거리를 조금 좁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앞에서 흔들리는 몸, 가빠지는 호흡, 멈추려 해도 이어지는 움직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자신의 몸에 남은 기억을 함께 떠올립니다. 타인의 피로를 이해하는 일이 자신의 지친 시간을 알아보는 일과 겹쳐집니다. 말로는 괜찮다고 했던 순간의 몸을, 춤 앞에서 뒤늦게 만나기도 합니다.

그녀가 사람의 몸을 통해 이 질문을 건넨다는 점이 제게는 소중합니다. 몸은 살아온 시간을 품고 있으며, 그 흔적은 늘 보기 좋은 모습으로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그 흔적을 움직임으로 들여다봅니다. 저는 〈백야〉를 함께 바라보며, 잠시 흐트러져도 되고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한 사람에게 얼마나 절실한지 생각했습니다. 어둠은 그러한 몸을 감추어주는 동시에,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올 여백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멘토로 함께하는 동안 저는 그녀가 자신의 세계를 더욱 선명하게 펼쳐갈 수 있도록 곁에서 질문을 나누었습니다. 서로 다른 감각과 생각을 마주하며 저 역시 배웠습니다. 오랜 제자와 이제는 동료 안무가로서 춤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쌓아온 시간이 있는 만큼 그녀의 변화를 알아보는 기쁨이 있었고, 그 시간만으로는 다 알 수 없는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2026 국립무용단 청년교육단원 소개

국립무용단은 2024년부터 매년 20여 명의 청년교육단원을 선발해 차세대 한국무용수 육성에 힘쓰고 있다. 국립무용단의 전문적인 교육체계와 국립극장의 제작시스템을 기반으로 다양한 실무교육과 무대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청년 무용수들이 창작 역량을 키우고 예술적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6년 청년교육단원은 〈안무가 프로젝트〉에서 세 명의 신진 안무가와 함께 작품의 창작부터 무대 구현에 이르는 과정을 경험하며, 새로운 춤의 언어와 표현 방식을 탐색한다. 국립무용단은 앞으로도 청년 무용수들이 전통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동시대의 감각을 수용하고, 한국춤의 미래를 이끌어갈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6 청년교육단원

곽승주 권대혁 김나은 김다나 박기윤 박수빈 박수현 박정민 배지은 신한서
윤수진 이민성 이민애 이현승 정보경 천성은 천성현 채지운 허종근

국립무용단 소개

1962년에 창단된 국립무용단은 국립극장의 전속단체로 전통을 기반으로 한 창작을 목표로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초대 단장인 송범을 시작으로 조흥동·최현·국수호·김현자·배정혜·윤성주·김상덕·손인영에 이어 현재 김종덕이 예술감독 겸 단장을 맡고 있다. 당대 최고의 춤 예술가들의 지도하에 전통과 민속춤을 계승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동시대의 관객이 감동할 수 있는 현대적인 작품 개발을 위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요 레퍼토리로는 전통춤 모둠 <코리아 환타지>, 무용극 <춤, 춘향>, 세련된 한국 춤 <묵향> <향연>, 해외 안무가와의 협업으로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우리 춤의 가능성을 확장한 <회오리> <시간의 나이> 등이 있으며, 전통을 기반으로 각기 다른 미학의 춤 예술로 한국창작무용을 선두에서 이끌고 있다. 한국 최고의 기량을 자랑하는 국립무용단원은 역동적이고, 세련된 춤사위로 관객에게 행복한 미적 체험을 선사한다. 국립무용단은 현재의 감동이자 미래의 전통이 될 풍성한 레퍼토리와 신작 개발을 위해 쉼 없이 정진하고 있다.

예술감독 겸 단장

김종덕

훈련장

장현수 정현숙 이석준

수석

김미애 정세영 조용진 황태인 박소영

부수석

정길만 정소연 김은이 박혜지 이도윤 선승훈 이승연

단원

김현숙 김현주 김원경 윤성철 박재순 김은영 김영미 문지애 정관영 이세범 최원자 이윤정 박기환 엄은진 김회정 박미영 장윤나 전정아 이민영 조현주 이의영 박지은 황용천 송지영 이재화 이요음 조승열 박준명 박수윤 이태웅 강대현 이재인 김나형 박준엽 이승찬 서상원

instagram.com/ndckorea

창작진

죽일 수도 없고

안무 **이이슬**

작곡·음악감독 **임용주**

멘토 **나수진**

백야

안무 **송윤주**

작곡·음악감독 **고지인**

멘토 **정보경**

COUNT

안무 **선승훈**

작곡·음악감독 **김관우**

멘토 **지서훤**

국립무용단 예술감독 **김종덕**

그룹 멘토 **김재리**

무대디자인 **김종석**

의상디자인 **최인숙**

조명디자인 **주영석**

음향디자인 **이재식**

무대감독 **임기수 정대교**

분장디자인 **박효정**

분장 **김영 이상아**

홍보물디자인 **워크룸**

홍보영상 **602스튜디오**

연습·공연 사진 **이다빈**

콘셉트 사진 **황필주(STUDIO79)**

재활트레이닝 **롤링앤웨이브**

옥외홍보물 **대일특수**

국립무용단

인스타그램 **ndckorea**

국립극장 제작진

극장장 직무대리 **김석일**

국립무용단

예술감독 겸 단장 **김종덕**
책임프로듀서 **오지원**
프로듀서 **박슬기 오수정**
총무 **변승희**
인턴 **민세희**

공연기획부
공연기획부장 **이동현**

전속단체공연지원팀
전속단체공연지원팀장 **채인영**
전속단체공연지원팀 **이종민**
박양미 박명빈
물리치료실 **송기현**

공연기획팀
공연기획팀장 **권태연**
행정 **이용희 송성남 이소라**
책임프로듀서 **이재금 이서정**
마케팅 **이아림 김수린**
하우스매니저 **이선옥 박지현**
변혜진 임지은
티켓마스터 **정연정 오윤지**
김재경
공연안내 **이지윤 정지윤**
이인영
유아놀이공간 **이은혜**

무대예술부
무대예술부장 **손후윤**

무대기술팀
무대기술팀장 **이정행**
행정 **김홍석**
안전관리 **최성훈**
무대감독 **임기수 정대교**
기계감독 **김진년**
기술지원 **이정환 이보한**
조명감독·디자인 **주영석**
프로그래머·오퍼레이터
이희선
팔로우 스팟 오퍼레이터
함승완 은명희
기술지원 **최기준 신의정**
음향디자인·감독·오퍼레이터
이재식
기술지원 **진하명 이예원**
최경은, 전종훈
영상감독 **지병환**

무대미술팀
무대미술팀장 **김재영**
행정 **김성식**
장치감독 **유민석**
기술지원 **강승구 강규한**
김정규 김항원 김선우
윤하은 황인석 최재림
김강현
작화감독 **김유리**
기술지원 **박순용 최다정**
소품감독 **박현이**
기술지원 **채수형 정욱**
홍재민
의상감독 **김효영**
기술지원 **조근하 유상현**
장신구감독 **이주선**
기술지원 **김은경**
특수효과
기술지원 **주영석 김성식**
유민석
무대예술지원센터 감독
박일천
기술지원 **한형석 김혜선**
조가현 오가연

교육전시부
교육전시부장 **박소정**
홍보팀장 **방강덕**
행정 **정재우**
책임프로듀서 **우다슬**
홍보팀 **정선영 차경주 박은영**
구해나 이다빈 김은채
이주한 안수진 유정수
정일석 노승관

국립극장
인스타그램 **ntong_ntong**
유튜브 **ntong2**
블로그 **ntok2010**
페이스북 **NTOKstory**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2026-2027



2026.
12.19~
26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2026-2027

국립극장 해오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극장



2027 축제

2027.2.4(목)~9(화)

국립극장 하늘극장



미인

2027.4.1(목)~4(일)

국립극장 해오름



파이브 바이브

2027.4.1(목)~4(일)

국립극장 달오름



겹

2027.6.3(목)~6(일)

국립극장 해오름

단열재 KS 제품